1 동정

▶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동경인쇄조합과 교류협력회의를 갖는다.

▶ **손안구** 서울제일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경기도 양평군 석산리 소재의 소리산에서 등산회를 개최했다.

▶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인대회 '함께 여는 미래,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 **이창연** 서점연합회 회장은 최근 '2010 서점 편람'을 발간했다.

▶ **이정춘**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중국도서전시회를 연다.

2 화촉

▶ **박성구** 한국소문사 사장의 장녀 영경 양이 지난 6월 26일 강남웨딩컨벤션 그랜드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윤홍열** 정우인쇄사 사장의 차녀 자경 양이 지난 6월 19일 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 3층 무궁화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부고

▶ **김유태** 건설상역(주)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 5월 26일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 **안수현** 모아기획 사장의 부친이 지난 6월 6일에 노환으로 별세했다.

4 변경

▶ **(주)미래엔컬처그룹**은 최근 대표이사가 김창식 씨에서 김영진 씨로 변경됐다.

▶ **(주)우진테크**는 최근 사업장을 용산구 서계동 261-23으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도 한동훈 씨로 변경됐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인쇄공용 서체 입찰, 윤디자인연구소 낙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개발에 들어간 인쇄공용서체(바른돋움체) 입찰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윤디자인연구소(대표이사 편석훈)가 낙찰을 받았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호텔 피제이에서 서체개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입찰에는 윤디자인연구소를 비롯, 산돌커뮤니케이션, 서울시스템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낙찰을 받은 윤디자인연구소는 올해 안으로 각진돋움체(고딕체) 1종(10,008자)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글 7050자(가는체, 중간체, 굵은체 각 2350자)와 약물 2958자(가는체, 중간체, 굵은체 각 986자)가 포함된다. 서체개발 비용으로는 1억6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해에 바른바탕체(명조체) 1종 3서체 10,008자를 개발, 인쇄업체를 비롯,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인협, 제2차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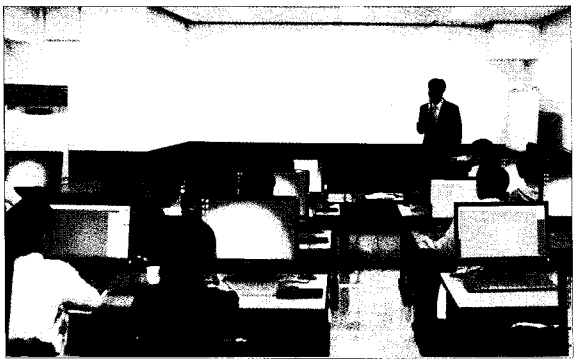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대표 얀 시퍼)는 지난 6월 9일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한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에서 제2차 국제산림협의회(FSC & PEFC) 인증 설

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0여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의 얀 시퍼 대표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쇄업계에서 환경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컨트롤유니온에 대한 소개와 FSC 및 PEFC 인증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인협은 지난 1월 컨트롤유니온과 친환경 인쇄 인증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친환경인쇄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인협과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협 회원사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비용의 10%를 감액받게 된다.

한편 컨트롤유니온은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선박 화물 검정,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 인증,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으로 FSC-FM(산림 관리 인증), FSC-COC(목제품 생산유통 인증), PEFC Global Recycle Standard(국제 리싸이클 인증기준)등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협, 상반기 전문인력 양성교육 성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2010년 상반기 인쇄전문 인력양성 무상 교육사업이 성황리에 끝났다. 인디자인 편집실무(매주 목요일), 디지털인쇄 실무(매주 금요일) 등 2개 과목을 개설한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6월 11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되었다. 한편 인협은 하반기에도 인쇄물수출전문가 양성과정, 편집 · 교정 실무 과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할 예정이다. 신청 일정은 추후 인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6.2지방선거 인쇄인 6명 당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인쇄인 6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의 다인커뮤니케이션즈 이진수 대표가 부산시의원에, 인천의 침문사 안병대 대표가 인천시의원에, 대구경북의 화미콤 오철환 대표가 대구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충남 부여군의 충원인쇄사 이경영 대표가 부여군 의원에, 대구의 대양사 임임환 대표가 대구시 중구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5 이전

▶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최근 본사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번지 해성1빌딩 2층 및 19층으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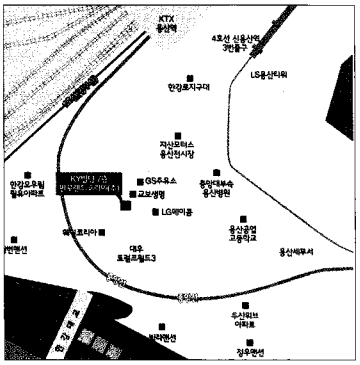
▶ **크리커뮤니케이션**(대표 우경수)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인현동2가 172-1로 이전했다.

▶ **애드컴서울**(대표 한상현)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인현동2가 192-30 4층 402호로 이전했다.

▶ **은광프린팅**(대표 신기숙)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42번지 아시아미디어타워 B203호로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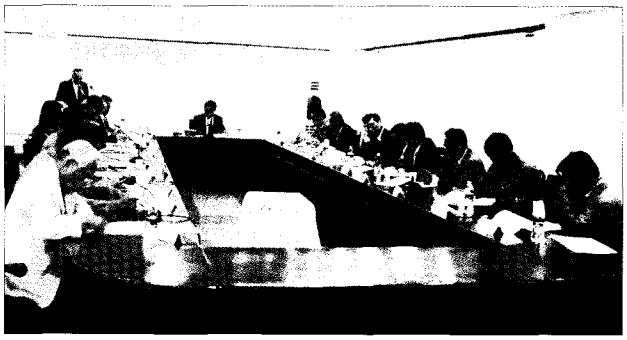
▶ **한국전산홈**(주)(대표이사 김성규)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남대문로5가 118 제분회관 3층으로 이전했다.

만로랜드코리아, 사옥이전



만로랜드코리아㈜(대표이사 케네스 엠 한센)는 지난 6월 12일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사옥을 이전했다. 만로랜드코리아는 이전 사옥이 부서별로 층이 나눠져 있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되었으나, 이번 사옥이전으로 임직원들이 모두 한 층에 배치되어 새로운 마음가짐과 단합된 조직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편도 편리해져, 용산역(1호선)과 신용산역(4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강변북로 이용도 편리하다.
만로랜드코리아㈜는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7 KY빌딩 7층 우140-880
대표전화: 02-777-5271
대표팩스: 02-777-5272
고객지원부전화: 02-777-7903
고객지원부팩스: 02-777-7904

인쇄연합회 정기이사회 및 제값받기 현판식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6월 9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먼 길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안으로는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밖으로는 국제펄프값 인상으로 종이가격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지난 2월에는 강원조합이 해산되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사, 전차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제1호 의안 2010년 1/4분기 말 재무제표 보고, 기타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타사항의 안건으로는 각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선거인쇄물 및 중소인쇄사업영역 침식 중지요청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건의서에서는 "대부분의 인쇄업체가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신문사에서 언론사의 특수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소요되는 입후보자의 홍보용 인쇄물을 독식하고 있다"라며 "인쇄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신문 불매운동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도 불사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인쇄업계 내의 자정노력도 함께 벌이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이사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인쇄물제값받기 현판식도 가졌다.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 후원 기금 조성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려, 직지 대모로 일컬어지는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의 후원 기금이 조성됐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난 2월 웅진코웨이와 암 투병 중인 박병선 박사의 치료와 연구를 위해 올해 상 · 하반기 각각 5천만 원씩 기금을 마련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박병선 박사는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고 그동안 입원과 수술 등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파악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7월 5일부터 코엑스서 열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보호구협회가 주관하는 제28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28th Korea International Safety & Health Show, 이하 KISS 2010)가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KISS 전시회는 국내 최고 · 최대 규모의 종합 안전 · 보건제품 전시회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개인보호구를 비롯해 소방, 교통, 전기, 가스, 생활,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인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시회 기간에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에서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전략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 위험관리 ▲건강한 일터, 튼튼한 근로자 ▲화학

물질의 새로운 접근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한다.

한편 KISS 2010 전시회가 열리는 4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다양한 세미나와 발표대회가 개최된다.

7월 5일 1시부터 열리는 안전보건교육훈련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방안(7월 6일 13:00~17:00 402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와 사업주 책임(7월 7일 13:00~17:00 327호),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7월 7일 13:00~17:00 402호) 등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미래엔컬처그룹, 디지털인쇄 프로모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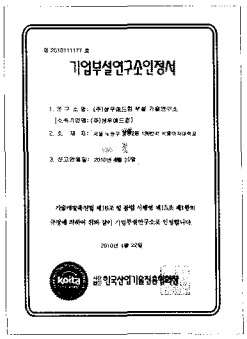
㈜미래엔컬처그룹(사장 김영진)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에서 고객초청 디지털프린팅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미래엔컬처그룹이 지난 6월 디지털인쇄사업을 새롭게 런칭하는 것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디지털인쇄에 대한 HP측의 발표와 함께, 박문웅 미래엔컬처그룹 부장이 '디지털인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김영진 사장은 "국내 인쇄출판관련 대표분들을 비롯해 각 계각층의 귀빈들을 모시고 디지털인쇄의 전반적인 이해와 성공사례를 통해 고객의 마케팅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성우애드컴,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성우애드컴(대표이사 이민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 인쇄산업 디자인 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체형상(3D)의 전개 및 종이모형 콘텐츠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로 2009년 5월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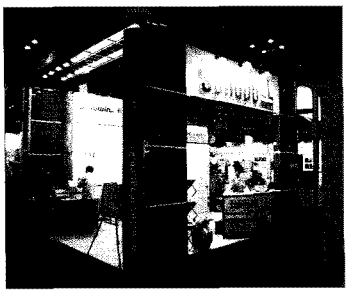
선정되었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활발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우애드컴의 이민성 대표이사는 "이제 한 우물을 똑같은 방식을 고수해서 파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스마트(SMART)한 고객들이 늘어나는 요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보다 더 스마트(SMART)해야 한다"며 기술연구소 설립 취지를 밝혔다.

㈜성우애드컴의 기술연구소는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인력 수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인력과 장비 소요자금을 지원 받으며, 빠르게 급변하는 인쇄 출판 시장의 흐름에 맞춰 사업 다변화와 상품 다각화로 새로운 기술개발의 창조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성우애드컴은 18년간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OK printing', 'Innopoxy' 등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고, 디지털-오프셋 인쇄시스템을 통합하는 신개념 하이브리드 인쇄로 신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성도GL/성도솔루윈, 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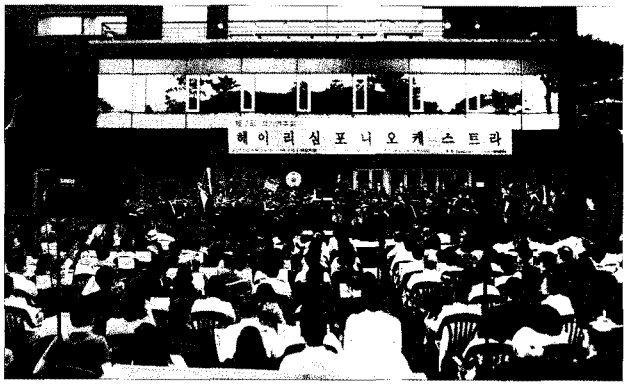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 국제포장기자재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이번 전시회에 에스코아트워크의 패키징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구조도면 디자인, 3D 가상견본 제작을 위한 ArtiosCAD 소프트웨어, 별도의 목형 제작 없이 고품위 패키지 생산이 가능한 Kongsberg XE Series 중 Kongsberg XE10 Cutting Table을 전시했다. Kongsberg XE Series는 다양한 소재 가공한 제품으로서 마닐라, Single Flute 골판지, 시트지, 플라스틱 등의 합성 소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깊이의 부분 커팅과 완벽한 인쇄 핀 맞춤 기능 지원 등으로 오프셋 프린팅용 바니쉬 블랭킷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직접 시연을 통해 제품의 우수

성을 알렸으며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고객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이번 2010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에서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선보여 참관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켰으며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전시회였다"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윈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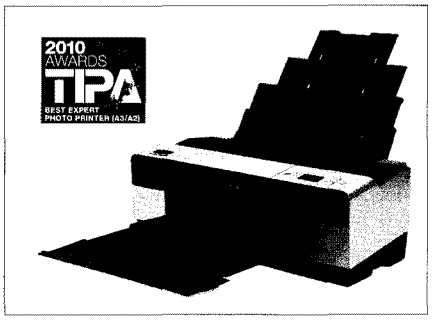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6월 5일 예술마을 헤이리의 공간 Purple에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성도GL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 메세나 협의회를 통해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4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를 맡고 있는 서현석 지휘자의 지휘로 음악평론가 장일범씨의 해설과 테너 한윤석, 소프라노 김은주, 러시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에 최연소로 입상한 이수빈양의 특별 연주로 오케스트라의 협연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연주회는 각계각층의 귀빈뿐만 아니라 무료 공연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간 Purple에서는 '곽인식 이우환 이강소'가 오픈되었는데, 물질과 존재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통하여 무수한 점으로 구현된 빛의 세계를 창조해 낸 곽인식과 일본 모노하의 근간을 제시하고 그 논리의 길을 의식화시킨 이우환, 그리고 문인화적 필치와 함께 풍부한 내연을 담아내고 있는 이강소의 작품을 통하여 한국현대미술의 그 구체적 근간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8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성도GL/성도솔루윈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화 행사 진행이 지역사회의 공헌과, 고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헤이리 마을의 공간 Purple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엡손, 'TIPA 어워드' 3개 부문 최고상 수상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은 유럽 이미지 출판 협회(TIPA)가 주최하는 TIPA 어워드 2010에서 Epson Stylus Photo 3880, Epson EH-TW5500, Epson Perfection V600 Photo 등 총 3개 제품이 각 부문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Epson Stylus Photo 3880은 베스트 엑스퍼트 포토 프린터부문, Epson EH-TW5500은 베스트 프로 포토 프로젝터 부문, Epson Perfection V600 Photo는 베스트 포토 스캐너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TIPA 어워드는 1991년부터 유럽 13개국, 29개 잡지의 주요 카메라, 영상 전문지의 단체인 TIPA(Technical Image Press Association)가 1년에 한번 유럽에서 발표된 사진 · 영상 제품 중에서 부문 마다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전문가들은 혁신성, 최첨단 기술, 디자인, 사용의 편의성 및 가격을 고려해 수상작을 결정하고 있다. 엡손은 지난해 'Epson Stylus Photo TX800FW'와 'Epson Stylus Pro GS6000' 두 제품이 수상한 바 있다. 한국엡손의 서치헌 부장은 "이번 프린터, 프로젝터, 스캐너 등 3개 부문 수상은 디지털 포토 시장에서 엡손 제품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전세계 모든 고객이 만족하고 전문가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애드컴, 2010DTPIA 춘계워크숍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6월 5일부터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130여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0DTPIA 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이정희 대표이사는 DTPIA 및 협력업체 여러분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회사를 발전시키고 안정된 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춘계워크숍을 계기로 DTPIA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별로 각 부서간의 업무를 교육연극으로 재연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기자랑 및 명랑운동회, 부서간 축구시합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DTPIA동대문센터, 영등포센터 및 대전센터가 차례로 오픈됨에 따라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고객에게도 직영서비스를 확대한 성진애드컴은 본격적으로 소량다품종 인쇄 및 가변 데이터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임스페이스
미국 TEM사와 동영상 공급 계약 체결

종합 이미지 공급사인 (주)타임스페이스(대표이사 최송목)는 최근 세계 최대의 동영상 컨텐츠 제공회사인 미국 TEM사와 동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스페이스에 따르면 TEM사는 세계의 도시, 문화와 자연, 특수 효과 및 고도의 기술로 촬영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영상을 소장한 회사로서 이번 계약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타임스페이스는 온라인 이미지 컨텐츠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세계 메이저사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공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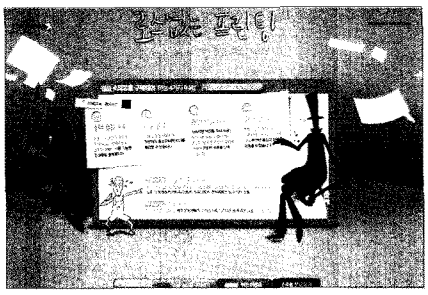
리소코리아 환경보존을 위한 봉사활동 펼쳐

㈜리소코리아(대표이사 우에무라 사토시)는 지난 5월 29일 환경보호를 위해 강동송파환경연합과 함께 '청량산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청량산 환경보존활동'은 리소코리아 창립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창립 의의를 새롭게 다지고 환경문제와 관련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연대감을 갖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리소코리아 직원들과 강동송파환경연합 회원들은 청량산 환경보존활동, 외래식물 제거활동, 정화활동(쓰레기 줍기), 훼손나무 보전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리소코리아 우에 무라 사토시 대표는 "리소코리아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_ www. risokorea. co. kr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로스 없는 프린팅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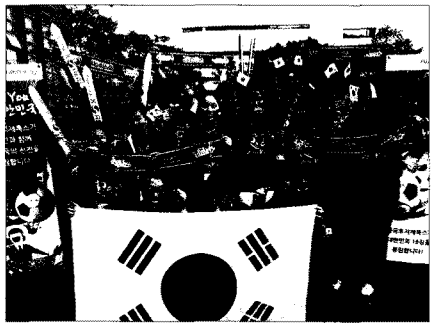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5월 25일 정품 소모품 캠페인의 일환으로 A3 컬러 레이저 프린터 인기 모델 4종의 정품 소모품 구입 고객 대상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로스 없는 프린팅'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로스 없는 프린팅' 프로모션은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A3 컬러 레이저 프린터 DPC4350, DPC2255, Phaser7760, DPC3055DX의 정품 소모품을 구매한 후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A3 제품의 시리얼번호를 등록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모품에 부착된 스티커의 스크래치 제거하고 이벤트 응모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소모품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하는 모든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영화예매권, 주유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품 소모품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단, 국내 미출시 시 바이오 노트북으로 대체), 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휴가비 3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홈페이지_ www. xeroxprinters. co.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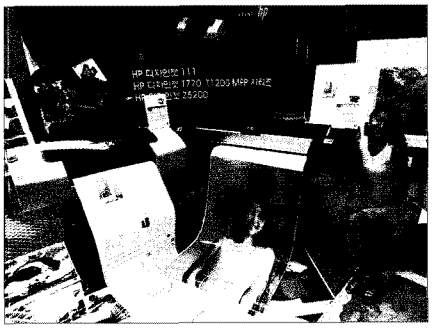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월드컵 관련 이벤트 진행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6월 15일 직장에서도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사내 임직원 및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900여명의 전 임직원에게 월드컵 티셔츠를 배포하고, 한국전이 열리는 날에는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전사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전의 최종점수를 맞추는 '스코어를 맞춰라!'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직장에서도 월드컵 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월드컵 이벤트도 진행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시청 근처에 위치한 본사 주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미니 축구게임 이벤트를 벌여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이벤트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선전이 열리는 날 한국후지제록스 본사 앞 광장에서 점심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미니 축구게임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머리띠, 두건 등 다양한 월드컵 응원도구와 캔커피를 증정했다.

한국후지제록스 신상헌 마케팅실장은 "무채색의 정장이 아닌 붉은색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사내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다"며 "회사가 시청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 퇴근 후 함께 모여 길거리 응원을 하기로 뜻을 모으는 사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HP, 디자인젯 시리즈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6월 15일 번거로운 대형 출력 과정을 간소화 시킨 'HP 디자인젯 4종'을 출시하고 초보자도 쉽게 대형 출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HP 디자인젯은 건축, 대형 도면, 그래픽, 맵,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전문 상업용 프린팅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정교한 세부 표현으로 이미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출시하는 디자인젯 시리즈는 ▲HP 디자인젯 Z5200 포스트스크립트 프린터 ▲HP 디자인젯 T770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111 프린터 ▲HP 디자인젯 T1200HD 디지털 복합기 총 4종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초보 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비용 제공 및 'HP 인스턴트 프린팅 프로 솔루션' 등을 통한 출력 업무의 자동화, '컬러프로 기술' 적용을 통한 최상의 퀄리티 구현 등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한국HP, 월드컵 대규모 단체 응원전 실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6월 14일 <한국 vs 그리스>전 경기를 맞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전은 지난 3월~4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한국HP, 나만의 축구팀 만들고 남아공으

로 응원가자!' 프로모션에 따른 것으로 최종 우승팀 (5명)과 함께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된 최종 32팀(160명)을 비롯, 프로모션 기간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명 등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날 한국HP는 단체 응원전에 참가한 200여명의 우수 미션팀원을 위해 극장 내 대형 스크린을 제공하고 음료와 식사, 응원도구 등을 지급해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극장 내에는 별도 사진 공간을 마련해 HP 포토 프린터의 뛰어난 성능을 체험하고 단체 응원전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한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고객과 HP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월드컵 이벤트 참여부터 뜨거운 단체 응원전 참여까지, 이번 단체 응원전이 HP고객들에게 2010년 월드컵과 함께 잊지 못할 멋진 선물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HP, 슈렉4 개봉 기념 프로모션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6월 17일 파트너사인 드림웍스의 '슈렉4' 국내 개봉을 맞아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하는 'TRUE LOVE, TRUE COLOR'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슈렉4' 영화 및 영화 티켓을 제공하는 본 행사는 6월 17일 홈플러스 상암월드컵 경기장 점을 시작으로 1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2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되었으며, 7월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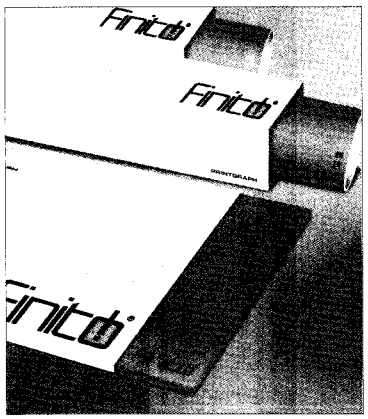
이와 함께 한국HP는 HP포토스마트 트위터에 팔로우(followers)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프린터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HP트위터 이벤트는 ▲HP 포토스마트 C309g ▲HP 포토스마트 플러스 B209a ▲H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팩스 C309a ▲ HP 포토스마트 C4780, C4680복합기 등 총 5종에 해당되어 진행된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파트너사 드림웍스의 신작 영화 개봉을 맞아 HP 고객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HP포토스마트 트위터_ twitter. com/hpprinter

화성메이저, 불칸 퀵스타트와 피니토 선보여

화성메이저㈜(대표이사 최충순)는 최근 전혀 새로운 개념의 블랭킷과 패킹 제품인 '불칸 퀵스타트'와 '피니토'를 시장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불칸 퀵스타트는 화성메이저가 한국 독점대리점으로서 공급하고 있는 이태리 불칸 블랭킷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으로서, 매엽기용 블랭킷 뒷면에 폴리우레탄 기반의 패킹재질이 도포되어 있어서 블랭킷통 언더패킹의 필요성을 없애주고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충격 내성과 내구성을 제공한다. 또한 각 매엽기 제조업체별로 알맞은 두께로 제공되는 불칸 퀵스타트는 블랭킷 기술을 한 걸음 크게 진보시키면서 생산성의 향상, 비용 및 품질 상의 확실한 이점을 제공한다. 0.8mm에 달하는 충격 후에도 100부 만에 블랭킷이 정상 복원되어 불칸 퀵스타트의 경이로운 충격 내성을 실감할 수 있다. 여타 일반적인 블랭킷을 사용할 때 이렇게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작업자가 인쇄기를 멈추고 블랭킷이나 언더패킹 또는 둘 모두를 교체해야만 한다. B1 매엽기에서 이러한 중단 및 교체 작업은 약 15분이 소요되어 생산에 손실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블랭킷과 제대로 인쇄되지 않은 용지들을 모두 폐기해야만 한다.

이태리 프린트그라프 사에서 제공하는 피니토는 인쇄 블랭

킷용 범용 언더패킹으로서 언더패킹 블랭킷의 기술적/상업적 개념을 새롭게 세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전세계 특허제품이다. PES 필름에 다양한 두께로 캘린더링 되어 있는 변형 TPU(써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로 구성된 피니토는 기계충격 흡수가 뛰어나며 인쇄품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피니토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제품으로서 기존 언더패킹 블랭킷과 패킹지를 대체하여 종래의 언더패킹이 가진 보관 및 관리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준다. 피니토는 기존의 패킹지와 비교할 수 없이 수명이 매우 길어 한번 걸면 평균 약 6개월까지 새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압축변화에 대한 내성과 복원성이 최적이며, 기계충격 내성이 뛰어나다. 특히 뛰어난 탄성 기억으로 인쇄용지 변경이나 사이즈 변경에도 언더패킹을 교체해 줄 필요가 없다. 피니토는 망점 및 민판재현성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며, 패킹지를 사용하던 기존 조건과 똑 같은 환경에서 패킹만 피니토로 바꿔 인쇄를 하면 즉시 인쇄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쇄 시 밀리는 문제도 크게 개선시켜 주며 환경친화적인 내화성 제품이다.

오키프린팅솔루션, 차세대 LED 프린트헤드 개발

오키프린팅솔루션(한국오키시스템즈 대표 유동준)은 최근 독자적으로 보유한 EFB(Epi Film Bonding: 에피 필름 접착) 기술로 차세대 LED 어레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LED 자체로는 빛을 발산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이지만 EFB기술로 LED에 스위칭 기능을 추가해 칩의 폭을 22%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오키프린팅솔루션이 선보이는 LED 프린터는 새롭게 개선된 LED 어레이를 장착한 신형 LED 프린트헤드를 사용될 예정이다.

EFB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LED 프린트헤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프린트헤드는 기존 LED 프린트헤드보다 약 두 배의 LED 빛을 더 발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프린터에 비해 전력 소모를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인정받아 2008년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수여하는 '뉴 머시너리 프로모션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신형 LED는 칩 내부에 필요한 전선의 수와 함께 칩의 폭도 22% 줄어들며 단일 전원 공급 라인만으로 LED 패널 제작이 가능해 패널 수 또한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신형 LED 어레이는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오키의 일본 군마현 생산라인에서 제작되며 먼저 2종의 LED 프린트헤드 (1200 dpi와 600 dpi)에 신형 LED 어레이를 우선 장착할 예정이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사장은 "오키는 전세계 120여 개국에 진출하여 소형화, 고속, HD 출력과 같은 LED 프린트헤드 고유의 장점을 활용하는 세계 최대 LED 프린팅 솔루션 기업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지뉴스

무림SP,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무림SP(대표 김인중)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신사동 무림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국내 제지업계에서는 최초로 사업 기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무림SP 김인중 사장과 한국조폐공사 이계재 사업기술이사는 이날 체결식을 통해 무림SP는 향후 시큐리티페이퍼(Security Paper)등 특수 기능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큐리티페이퍼는 화폐, 유가증권, 복사방지 복사지 등 위변조를 막기 위한 특수종이로 국내 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림SP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의 특수지 생산기술을 보유한 무림SP가 시큐리티페이퍼 생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지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시큐리티페이퍼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는 무림SP 공장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양사 모두가 윈윈하는 긍정적인 효과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림P&P, 이토추 상사와 목재칩 수입계약 체결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5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이토추 상사와 활엽수 목재칩 수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은 박인섭 펄프사업본부장과 이토추 상사 생활자재부문의 토모후미 요시다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무림P&P가 이토추 상사로부터 연간 20만 톤씩 5년간 총 100만 톤의 활엽수 목재칩을 공급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림P&P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 매년 펄프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활엽수 목재칩 50만 톤 가운데 40%에 달하는 베트남 아카시아 목재칩과 태국산 유칼립투스 목재칩 20만 톤을 이토추 상사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목재칩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한국제지 온산공장, 보훈대상자 간담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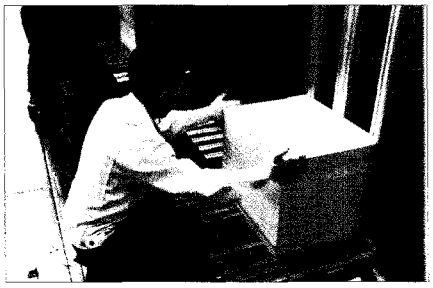
온산공장은 지난 6월 10일 6월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당사 재직 중인 보훈 대상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위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는 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위로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간단한 다과회를 곁들인 공장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회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국제지, 거래처 초청 온산공장 견학

한국제지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한정회 및 한정회 주요 거래처 71명을 대상으로 온산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종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공정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둘째 날에는 경주 지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프리미엄 복사지 하이퍼CC의 제조공정 학습 및 품질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거래 선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솔제지, 고객사 현장 체험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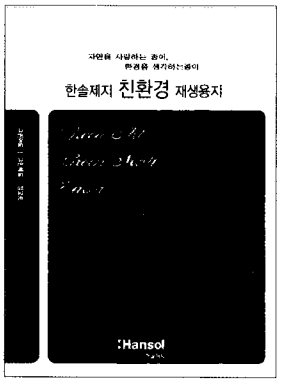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지난 5월부터 '고객사 현장 체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는 4개 고객사(천재프린피아, HP컨버팅, 한진P&C, 삼우아트)를 대상으로 영업 팀장 및 주무사원 7명이 1~2일간 현장 체험 활동에 참가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고객사를 선정해 현창 체험 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 체험은 한솔제지 제품이 실제 인쇄 및 후가공 공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품생산, 영업활동 시에 중점 관리할 사항은 무엇인지 직접 느끼는 것 외에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솔제지는 앞으로도 고객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즉시 경영에 반영하고 다양한 고객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솔제지, 재생용지 샘플북 선봬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최근 순수 국산 폐지만을 사용해 만든 재생 아트지, 매트지 등 재생용지 3종을 묶은 샘플북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그동안 폐지를 활용한 재생용지는 골판지 등의 판지류와 신문용지 쪽에서의 활용이 대부분이었다. 한솔제지는 인쇄용지, 그 중에서도 국내 수요 비중이 높고 고급지에 속하는 아트지에서 재활용률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한솔제지에서 개발, 출시한 재생 아트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산 폐지를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용지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늘 지녀왔으며 원료로 100% 수입 펄프를 사용하고 있어 인쇄용지 재활용 제품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간접적으로나마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용지 생산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재생용지 시장의 전망은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재생용지는 일반 제품 대비 품질은 비슷해야 하고 가격은 저렴해야 한다는 재생용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시장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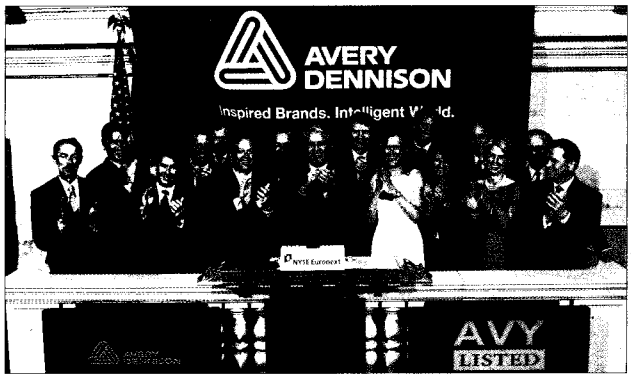
아트원제지, 더블코팅지 신제품 이름 공모전

아트원제지(대표 서재우)는 올해 9월 고급인쇄물 시장에 맞는 더블코팅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지난 5월 2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종이 원지에 1차로 탄산칼슘과 라텍스 등을 입히고 그 위에 2차로 고품질 약품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아트원제지는 광택은 물론 종이의 면성, 인쇄적성 등이 월등히 우수하며 표지와 잡지 등 고급인쇄물 제작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아트원제지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신탄진 공장의 싱글코팅 설비를 250억 원을 들여오는 8월까지 더블코팅 설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제품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수상작은 오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뉴스

에이버리 데니슨 창립 75주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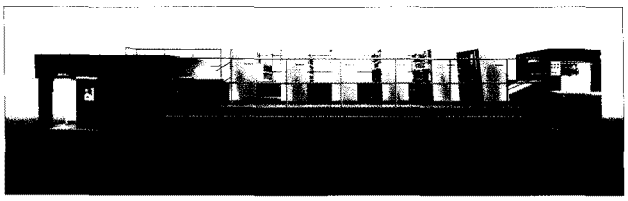
에이버리 데니슨은 지난 6월 2일 창립 75주년을 맞았다고 발표했다. 1935년 6월 R. Stanton Avery에 의해 창립된 에이버리 데니슨은 세계 최초의 라벨 제조 기계 및 점착 라벨을 개발했으며 에이버리는 꾸준한 제품 개발과 개선을 통해 총 18개의 특허를 받았다. 현재 에이버리 데니슨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연간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라벨링 및 패키징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에이버리 데니슨의 관계자는 고객의 사업과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혁신은 에이버리 데니슨의 핵심 가치이며 에이버리 데니슨은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버리의 Scarborough대표는 "이제는 전통을 새로운 비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며 그것은 에이버리 데니슨의 솔루션과 함께 보다 매력 있고 영감을 주는 브랜드, 더 편리하고 똑똑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버리 데니슨은 올해 본사 및 전 세계 각국에서 75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버리 데니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_ www. averydennison75years. com

프랑스 패키징그룹, 스피드마스터 XL 105 도입

프랑스 패키징 인쇄 업체인 LGR Emballages S. A. 는 하이델베르그로부터 3대의 스피드마스터 XL 105를 구입했다. 이번에 도입될 인쇄기는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Prinect



Inpress Control) 컬러 측정시스템이 장착되어 인쇄기의 가동 중에 컬러와 핀 맞춤을 조정한다. LGR은 현재 세대의 스피드마스터 XL 105를 가동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서 하나의 제조사로부터의 인쇄기들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LGR의 Torben Reine 대표는 "우리의 모토는 혁신에서 최고를 상징하는 최신의 인쇄기를 사용하여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선택하게 했던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약품 패키징은 단통이며 가격에 대한 압력으로 공정을 지속적으로 합리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GR은 3개의 박스 제조사로 구성된 제약업계를 위한 유럽의 전략적 연합으로 독일의 Edelmann과 영국, 이탈리아의 Nampak과 함께 세계적 대형 제약 회사들에게 효율적인 공급을 할 뿐 아니라 개별 공장의 지역적 요구도 충족시키고 있다. 오요나에 본사를 둔 프랑스 최대 패키징 인쇄 업체 중 하나인 LGR은 약품 패키지 제조를 전문으로 프랑스 내 1위, 유럽 내 3위의 대기업이다.

다이니폰스크린, IPEX 2010 성공적 마무리

다이니폰스크린은 IPEX 2010을 통해 'YOUR WISH is our print on demand'를 테마로 고객들이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집중 소개했다.

스크린은 Value-added printing, Media Mix promotion, Environment-friendly production 을 중심으로 다양한 데모와 샘플을 선보였고, 샘플들은 직접 배포했다.

스크린의 주요 출품 제품들은 세계 최초 B2사이즈의 매엽방식 디지털 인쇄기 Truepres Jet SX, 초고속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인 트루프레스 젯 520, 옥외 광고용 UV프린터 트루프레스 젯 2500UV 외 다수의 솔루션들이다.

트루프레스 젯 520은 개인을 타깃으로 한 가변 데이터 인쇄물 처리에 있어 생산성, 인쇄품질, 운영비 등 뛰어난 균형감을 갖춘 제품으로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고객 맞춤형 DM, 각종 청구서, 지역신문, 맞춤형 학습지, 서적, 잡지, 카탈로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성 높은 피에조 DOD(Drop On Demand) 잉크젯 헤드를 채용, 잉크 분사량을 매우 정밀하게 조절하며 멀티톤 인쇄를 실현하여 부드러운 계조 재현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조작이 쉽고, 유연성 있는 장비 배열이 특징이며 용도에 따라 A4 양면, A4 2-up 양면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최대 용지폭 520mm, 최대 생산성 128m/min (A4 860 페이지) 의 고속인쇄가 가능하다.

스크린이 야심적으로 준비한 트루프레스 젯 SX는 낱장형 급지방식에서는 세계 최초 B2사이즈(530×740mm)를 지원할 수 있는 잉크젯 가변프린팅 시스템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인쇄기들의 최대 단점인 사이즈의 한계(A3)를 극복한 것과 기존 토너방식과는 다른 안정적인 컬러 인쇄 품질이 특징이다. 동시 양면인쇄가 가능한 트루프레스 젯 SX는 프리코팅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인쇄 후 바로 후가공 처리(잉크의 속건성이 매우 뛰어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오프셋인쇄와 비교해도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다양한 용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1440dpi를 지원하는 가변인쇄로 책 표지, 대형 포토 앨범, 포스터 등 대형 사이즈 인쇄물에 특화하고 있다.

트루프레스 젯 2500UV는 대형 사이즈의 고속인쇄가 요구되는 사인/디스플레이 시장용으로 개발된 범용성 높은 대형 잉크젯 인쇄 장비로 최대 두께 50mm의 롤/평면 미디어에 모두 대응 가능하며 최대폭 2500mm까지 인쇄 가능하다. POP, 포스터, 보드, 판넬 및 건자재, 벽지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해상도는 300, 600, 900, 1200, 1500dpi의 5가지 해상도를 실현하고 있다. 시간당 최대 67.5m^2를 인쇄할 수 있다.

스크린은 이번 IPEX 2010을 계기로 POD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공헌함과 더불어 디지털 인쇄업계를 주도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델베르그, 스피드마스터 CX 102 첫 선

5만 명 이상의 인쇄인들이 IPEX 전시회 기간 동안 하이델베르그의 부스를 방문해 고성능(HEI Performance) & 고부가가치(HEI Value)의 슬로건 아래 하이델베르그가 전시한 다양한 혁신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생산성(HEI Productivity) 및 친환경(HEI Eco) 투어는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친환경 인쇄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장치들은 인쇄 회사의 요구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이델베르그는 IPEX 전시회에서 린 제조방식(lean manufacturing: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생산 방식), 단통 칼라 인쇄, 친환경 인쇄 및 웹-투-프린트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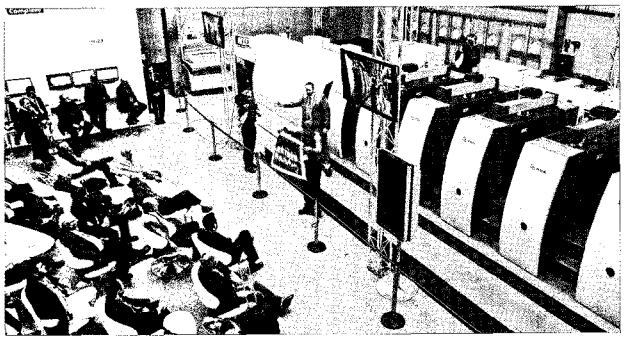
첫 선을 보인 스피드마스터 CX 102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최고의 관심을 받았으며 전시회를 통해 15대의 인쇄기, 총 90 유닛 이상이 이미 판매되었다. CX 102는 시간 당 1만6500 매의 고속으로 인쇄하여 스피드마스터 SM 102/CD 102와 스피드마스터 XL 105 사이의 시장을 겨냥했다.

중소규모의 인쇄 회사들은 최적의 인쇄를 위한 시작 단계의 솔루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새로운 프리넥 S 워크플로에 호감을 표했으며 하이델베르그는 지역적 MIS와 웹-투-프린트 공급사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하이델베르그의 번하르드 슈라이어 최고경영자는 "하이델베르그는 IPEX 2010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이델베르그의 고객들은 우리의 신제품과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 세계에서 기계와 서비스 모두에서 많은 판매를 기록했으며 모든 인쇄 규격대에서 약 900 인쇄 유닛과 90대 이상의 후가공 기계가 판매되었다"며 "확실히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델베르그 영국 지사의 조지 클라크 대표는 IPEX 2010은 "경기 회복의 전시회였으며 업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IPEX였다"며 "방문객 숫자는 4년 전 지난 IPEX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인쇄인들이 방문해, 영국에서만 모든 규격대를 걸쳐 140 인쇄 유닛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KBA, IPEX서 우수한 제품 다수 선봬



KBA는 지난 IPEX에서 B1 포맷의 라피다106, B2 포맷의 라피다75E를 대표로 내세운 가운데 뛰어난 전시물과 제품을 다수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KBA가 추구해 온 작업 전환의 간소화 및 시간단축, 인라인 피니싱 및 품질관리 향상, 에너지 및 자재 소모의 절감 그리고 수작업에 의한 입력 감소에 중점을 둔 개선노력이 혁신적인 인쇄 기술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KBA의 Halge Hansen 대표이사는 "KBA는 인쇄기 산업에서 폭넓은 제품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매엽 또는 윤전 그리고 신문 인쇄기와 같은 주요 핵심 시장뿐만 아니라 순환이 적은 유가증권 인쇄와 같은 틈새시장에서도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적인 인쇄기술은 KBA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KBA의 라피다106 인쇄기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색상 정밀도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

는 색상 정확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첨단 부가기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플라잉 잡체인지 등은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인쇄판 식별 및 자동 핀 맞춤 기능을 갖춘 KBA Plate-Ident, 플라잉 잡체인지(Flying JobChange)를 자랑하는 라피다106 6색 코터 인쇄기는 높은 관심을 끌었다.

라피다105는 중국, 인도,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성장세를 유지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화된 인쇄판 교환, ACR 비디오 핀 맞춤 제어, 자동 세척 및 DensiTronic 색상 및 측정 및 제어 기능으로 대폭적인 시간 절감을 실현시켰다. 라피다105의 생산량과 자동화 선택사양들은 시간당 1만6000매 성능의 인쇄기에서 다른 인쇄기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라피다75E는 에너지 및 공간 절약형 인쇄기로 각광을 받았다. 시간당 1만6000매를 인쇄하고 용지 두께를 0.8mm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된 5색 코터 버전은 연장 배지부, 자동 인쇄판 교환장치, 잉킹유니트 온도 제어장치, 롤러 및 블랭킷 세척장치 및 KBA ErgoTronic 콘솔을 갖췄다.

KBA는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로 친환경 인쇄구역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친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은 잊지 않았다.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킨 매엽 오프셋인쇄기인 라피다105를 전시한 최초의 제조사이며 German equivalent of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로부터 환경 인증을 수여받았다. 이 인증은 그 이후 라피다75에서부터 205까지 모든 라피다로 확대됐다. 에너지 효율적인 인쇄기 기술, 친환경적인 비습수 오프셋, 무알콜 습수 오프셋, 그리고 소음 및 먼지 감소 그리고 카본 배출은 KBA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로 KBA의 환경 개선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코닥 넥스프레스와 Print Genius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인정받아

이스트만 코닥은 IPEX에서 선보인 코닥의 넥스프레스 디지털 프레스용 'Print Genius 스위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코닥 넥스프레스 디지털 컬러 솔루션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속성이 확대되었으며, 뛰어난 디지털 인쇄 속도와 이미지 품질로 이미 업계에서 혁신적인 솔루션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상업 인쇄업자에게는 고속으로 성장하는 포토북, 인사장, 달력 등 개인용 포토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스트만 코닥의 부사장이자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의 총괄 본부장인 Isidre Rosello는 "고객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사진과 비디오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업 인쇄업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닥의 'Print Genius 스위트'와 온라인 접속을 조합하면 넥스프레스의 소유자는 더욱 많은 수익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 프레스 포토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용과 전문가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닥 넥스프레스 디지털 인쇄기'를 가진 이들과 코닥의 '포토 웹사이트 호스팅 및 데스크탑 프리미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이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이제 표준 코닥 넥스프레스 Intelligent Dimensional Coating Solution 및 Glossing page들을 조합해 수익성 높은 포토북, 인사장, 개인 엽서, 달력, 기타의 상품들을 창출할 수 있으며, 디멘셔널 페이지는 넥스프레스가 일반 인쇄보다 더욱 높은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스트만 코닥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인 Phil Faraci는 "코닥의 기술을 이용해 바로 인쇄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개인용 포토북과 달력 등을 고품질 인쇄 서비스를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라고 말했다.

폴라, IPEX서 자동화된 재단작업 호평

폴라는 IPEX2010에서 자동화된 재단작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폴라사의 마이클 뉴이가트 대표는 "신제품 '폴라 Xplus'에 대해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컷매니저(Cut Manager)에 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동화된 재단 시스템 L-R-137-T PACE가 큰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특히 높은 효율성과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잠재적인 절감 효과에 주목했으며 디지털 인쇄에 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뉴이가트 대표는 "폴라66 재단기는 35×50 규격에 주로 사용되며 높은 품질과 긴 수명으로 소규격 인쇄 업체와 디지털 인쇄 업체들에 매우 적합하다"고 소개했다.